



사무소의 정식 탐정님께

안녕하세요, 탐정사무소입니다.

각 두 사건의 진범을 잡아내셨군요. 덕분에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사건을 정리해보자면 민훈이 배우자인 류바람과 이미남의 불륜에 대하여 조사하던 중 이규남과 배광수라는 인물을 알게 되었고 복수를 위하여 배광수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평소 빛으로 협박을 받던 배광수는 민훈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고, 결국 살해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 인물들의 관계도만 보았을 때 서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각각 원한의 대상을 교환하여 살해하였습니다. 이미남은 류바람인 척하는 편지를 받고 해당시간에 문을 열어주었지만 배광수에게 살해를 당했고, 이규남은 돈을 골목에 놔뒀다는 배광수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갔으나 가방에 비밀번호가 잠겨있어 이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배광수에게 전화를 걸던 중 민훈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두 가해자는 현재 체포되었으며, 수사 중에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이었음에도 해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사건이 생겼을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탐정사무소장